

8월 12일 ~ 18일

#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서두르면 고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48년생 막혔던 일이 조금씩 해결 되어 간다. 60년생 능력이 있을 때 아랫사람을 챙겨라. 72년생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자신이 있는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96년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게 전부 아닐 수 있다.



37년생 묶여있던 재물이 들어온다. 49년생 석달 열흘 동안 비가 오더니 드디어 태양이 비추는 구나. 61년생 지나치게 유희이나 잡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73년생 대인관계에서 행운이 따른다. 85년생 자신감이 있다고 무리한 것을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97년생 주변이 보는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꼭 같지는 않다.



38년생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50년생 기만히 있어도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게 된다. 62년생 문서를 잡으면 길하니 매매할 일이 있거든 서둘러라. 74년생 길을 가다가 황금을 줍는 격이다. 86년생 주변의 도움을 얻는 것은 좋지만 꼭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98년생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라.



39년생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할 때이다. 51년생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게 될 수 있다. 63년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좋다. 75년생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행운을 붙잡는다. 87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 말고 긴장해야 한다.



40년생 불필요한 말로 구설시비에 휘말리니 말을 아껴야 한다. 52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라. 매사에 신중을 기하면 문제가 없다. 64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풍요속의 빈곤이다. 76년생 교통사고가 날까 두렵다. 매사에 조심해야 무탈하리라. 88년생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41년생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53년생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하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다. 65년생 예전에 알던 사람이 도움을 준다. 연락을 해 보는 것이 좋다. 77년생 멈추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89년생 잠시 멈추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42년생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54년생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66년생 자신이 할 일은 해야 안정이 된다. 78년생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라. 90년생 주변의 평가가 곧 자신이다.



43년생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이다. 55년생 남쪽이 행운의 방향이 된다. 67년생 기회가 왔는데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79년생 외국이나 지방으로 멀리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91년생 자신의 계획을 잘 지켜나가야 후회가 없다.



44년생 십년의 가뭄에 소나기가 내리니 이보다 기쁜 일이 있으랴. 56년생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을 찾으라. 68년생 머무르면 흥하고 움직이면 길하니 일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라. 80년생 헛된 생각만 품지 않는다면 길하니 잘못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92년생 목표만 확실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다.



45년생 이익만을 쫓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 57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69년생 사소한 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81년생 스스로가 담당하면 문제는 없다. 93년생 자신의 일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46년생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베풀었던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58년생 도둑을 조심해야 한다. 70년생 손해가 이익이 될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이 생겨난다. 82년생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후회될 일이라면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94년생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법이다.



47년생 아랫사람의 일에 참견을 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는 것은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루어야 한다. 71년생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83년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95년생 변수가 생겨도 일단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공 : 당신의 멘토, 운조야

## 주간 일기예보

출처:네이버 날씨

8월 8일 목요일



8월 9일 금요일



8월 10일 토요일



8월 11일 일요일



8월 12일 월요일



8월 13일 화요일



## 시사상식 자각몽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꾸는 꿈이다. 자각몽은 수면자가 꿈꾸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꿈 내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깨어나서도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다. 1913년 네덜란드의 내과 의사 F. V. 에텐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정신과에서는 일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악몽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2013년 한국에서는 자각몽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예컨대 10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 중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각몽 카페 '루시드 드림'에는 자각몽을 배우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나 자각몽 성공 체험담이 꾸준히 올라왔다.

자각몽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다. 꿈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람이 달린 메모장 앱, 잠이 든 상태에서 의식만 깨운다는 특수 알람 앱 등이 그런 경우다. 2) 자각몽 열풍을 타고 자각몽을 유도하는 제품도 등장했다.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꿈 표식(DREAM SIGN)으로 수면자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면유도 안대인 '드림사인'이 그런 경우다. 출판계도 자각몽 열풍의 자장에 들었다. 2013년 10월 출간된 니콜 립킨의 '사장은 왜 밤에 잠 못 드는가'는 자각몽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자각몽 열풍의 이유로는 현실도피 심리와 대리만족이 꼽힌다. 자각몽 상태에서는 꿈의 상황이나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각몽을 통해 힘든 현실과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취업 대란에 신음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청소년들이 자각몽 열풍에 쉽게 함류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래서 자각몽을 일컬어 잉여세대의 도피처라는 말까지 나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이용자만족도 푸른방송 전국 1위



#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